

ECB, 24.4월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

1 금융시장 반응

24.4월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

- ◆ (정책결정) ① 정책금리 동결(수신금리 4.00%) ② PEPP 보유 규모를 하반기부터 매월 75억유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재투자 중단(종전과 동일) ③ 향후 전망에서 물가목표 달성 확신이 강해지면 금리인하 실시
- ◆ (기자간담회) ① 일부 위원은 금리인하를 선호했으나 금리동결에 동의 ② 근원물가가 완화되고 임금 상승률도 점진적으로 누그러짐 ③ 특정 금리경로를 사전에 정하지 않을 것

□ 독일 국채금리(10년물)는 ECB 정책결정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*했으나 장중 미 장기금리 오름세 등으로 소폭 상승(2.46%, 전일대비 +3bp)하고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는 확대(141bp, +4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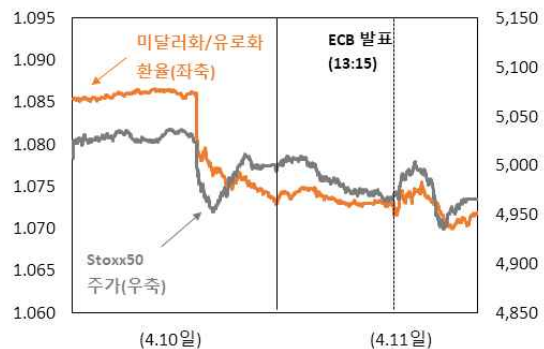
* 독일 단기 국채금리는 2.97%(2년물 기준)로 전일 대비 변동없음

○ 유로화 환율(US/€)은 전일에 이은 미 달러화 강세 지속 등으로 하락(1.0743, -0.20%)하였으며, 주가(Stoxx 50)는 하락(4,964, -0.72%, 런던 시각 17:00시 기준)

독일 국채금리(10년물) 및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¹⁾



유로화 환율 및 주가(Stoxx50)



주 : 1)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- 독일 국채 10년물
 자료 : 블룸버그

- 시장참가자들은 정책결정문에서 **향후 금리인하**를 시사하는 문구들이 추가* 또는 수정** 되었으면서도 정책 유연성 확보를 위해 **데이터 의존적 입장**을 고수한 Lagarde 총재의 스탠스가 **시장 예상**에 **부합**한 것으로 평가

* ...it would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current level of monetary policy restriction

** 현 금리 수준의 지속 필요성 문구(key ECB interest rates are at levels that...maintained for a sufficiently long duration,...contribution to this goal) 삭제

- 금리인하를 위해 서비스물가를 비롯한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물가목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으며,

6월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Lagarde 총재의 언급은 ECB가 6월 금리인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시사(RBC)

- 경제여건 측면에서 기초적 물가 및 임금지표 둔화와 여전히 sticky한 대내 서비스물가를 동시에 언급하고,

향후 정책방향 측면에서는 통화긴축 정도를 줄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*을 나열하고 회의별 접근방식을 함께 강조하는 등 **균형을 잡으려는 노력**이 역력한 모습(J.P.Morgan)

* 수정 물가전망 결과, 기초적 물가흐름,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도

- 또한 향후 **정책금리 경로**에 대해 **속단하지 않겠다**고 한 Lagarde 총재의 발언은 그간 데이터 의존적인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**예상 가능**했음(Lloyds)

- 한편 Lagarde 총재가 ECB 정책결정은 **미 연준과 독립적**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, 일각에서는 미 지표가 유로지역 실물, 금융여건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연준 결정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**회의적**인 입장(Jefferies)

- 주요 투자은행은 금일 ECB 정책결정이 당초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**차기(6월) 정책금리 인하 개시** 및 **금년중 75~125bp 가량의 인하폭**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**시장**은 이보다 다소 **hawkish**한 입장*

* 금일 선도금리시장은 6월 금리인하(25bp) 가능성을 82% 반영하고 금년중 총 77bp의 금리인하만을 반영하고 있는데, 이는 전일(4.10일)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Fed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전망이 크게 약화된 데 기인